

**독** 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.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.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.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. <글책임: 편집자> ●보낼곳: 우 110-734 서울 서초구 안국동 175-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'길을 묻는 이에게' 담당자 앞 ●인터넷: www.hanmaum.org 또는 한마음 선원 ●FAX: (031)470-3116



## 길을 묻는 이에게

제 659호 현대불교  
2007년 12월 26일(음력 11월 17일) 수요일 / 불기 2551년  
법공양 페이지

# 19

# 내일이 있는 자유, 여여한 자유, 세세생생의 자유 얻어야!

### 새해에 무엇을 얻고 가야 할지요?

**문** 한 해가 저물고 새로운 한 해가 다가오고 있습니다. 스님께서는 올 것도 같 것도, 나마 저도 없다고 하겠지만 얻고 없는 그 가운데에서 정말 저희들이 무엇을 얻고 가야 할지요? 새로운 한 해 동안 공부 열심히 할 수 있도록 덕담 한마디 부탁드립니다.

**답** 새해를 맞이해서 올해는 한층 더 분발해서 자유스럽게 벗어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얻으시길 바랍니다

그런데 우리가 냉정하게 따지고 본다면 어제와도 현실도 없고 미래도 없는 생활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. 왜 어제도 없고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느냐 하는 것은 항상 말씀해 드렸죠. 고정됨이 없고 찰나찰나 화(化)해서 돌아가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. 발자국을 떼어 놓을 때 한 발짝 떼어 놓으면 한 발짝 없어지고 하는 도리와 같이 우리 생활이 전체가 다 그렇다는 얘기고요. 고정되게 저기만 바라보고 있으면 미쳤다고 할 겁니다. 일체가 다 그러니까요. 모두가 다! 이거 보면 저거 봐야 하고, 이거 들으면 저거 들어야 하고, 이거 만나면 저거 만나야 하고, 이 길을 걸으면 저 길을 걸어야 하고, 갔다 하면 와야 하고... 그냥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.

그런 말씀을 여러번한데 많이 해 드렸죠. 고정됨이 없어서 그냥 그렇다고요. 그래서 삼세(三世)가 공했다고요. 삼세가 공한 반면에 자기조차도 공했다고요. 고정됨이 없다고 한 자체가 바로 나도 공하고 전체가 공했다는 얘기고요. 그래서 어찌 깨도 없고 오늘도 없고 내일도 없다 이런 말이에요. 그래서 또 '같이 포용된 나는 내세울 것도 없고, 했다고 할 것도 없고, 한다고 할 것도 없다.' 이렇게 나오죠. 고정된 게 없고 찰나찰나 화해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.

그거를 생각해서 그전에도 말씀해 드렸죠. 내 몸뚱이 속에 생명들이 많이 들어 있는데 내가 목이 말라서 물 한 컵을 마셨다고 한다면 내가 마신 거겠습니까, 누가 마신 거겠습니까? 개별적으로 누가 마셨다고 할 수가 없죠. 그렇죠? 포괄적이죠. 공식(共食)이죠. 그러니까 어떤 거를 내세워서 내가 했다, 내가 먹었다 할 수가 없다는 얘기고요. 이런 거를 자세히 이해가 가게 얘길 해 드려야 놓고 말기고 뛰어넘죠.

이 모습을 가지고는 뛰어넘을 수가 없죠. 그래서 지난번에도 얘기했죠. 컴퓨터를 잘하는 부부가 있었는데, 컴퓨터를 하다 하다 끝까지 들어가

봐도 자기 남편과 자기가 둘 아니게 될 수가 없더라는 거죠. 자기 모습이 없어져야만 둘이 아니게 하나로 될 수가 있더라는 얘기고요. 그 사람들은 컴퓨터만 가지고 그랬지 부처님 법을 모르기 때문에, 부처님이 나오시기 이전에도 이 진리는 있었지만, 이 진리를 모르는 까닭에 자기 몸을 다 그냥 태워 버렸거든요. 태워서 모습을 없애고서야 하나가 됐어요.

그러나 살아 있으면서도 공한 도리를 알면 내세울 것도 없고, 또 공한 도리를 알면 지금 불가에서 말하는 소리로 하자면 '죽었다' 이거죠. 죽은 거다 이겁니다. 그러니까 공했다, 공했으니까 내가 살았다고 세울 것도 없고, 했다고 할 것도 없고, 내가 죽어서 갖 것이 있다고 할 것도 없고, 온다고 할 것도 없고 그렇단 얘깁니다. 그러면 그 사람들이 그 공한 도리를 알았다면 죽지 않고도 하나가 되는 도리를 알았을 텐데 말이에요.

그런데 부처님의 마음은 일체 만물만생을 다 일대사의 인연으로 맺으셨어요. 그건 왜냐. 어떤 모습이라도 내 모습 아닌 게 없고 어떠한 생명이 라도 내 생명 아닌 게 없고, 내 마음 아닌 게 없고, 내 부모 아닌 게 없고, 내 자식 아닌 게 없고 모두가 미생물에서부터 전체가 그렇거든요. 우리가 꽃나무를 '아! 난 참 이쁘게 피었다.' 이라고 볼 때는 틀이 아닌 거예요. 모습은 다름지언정 꽃나무와 내 마음이 둘이 아니기 때문에 찰나찰나, 꽃나무도 응해 주고 나도 응하고, 그래서 꽃은 시들 다가가도 좀 활기가 나서 '아이, 네가 그렇게 해주니까 참 고마워.' 하고 잎이 더 싱싱하게 된다 이런 말이에요. 그러니까 이것이 둘이 아니게끔 돼 가지고 그냥 고정되게 있다면 그것도 안 되죠. 그러나 찰나찰나 둘이 아니게끔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부처님께서 전체 다 먹어치운 거죠. 자기와 둘이 아니게 말이에요.

우리가 한 철 살면서 이렇게 그냥 수레바퀴 돌듯 하는 이 주머니 속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내일이 있는 자유를 못 얻어요. 내일이 있는 자유! 여여한 자유! 세세생생의 자유! 그래서 이 마음공부 하는 사람들은 돌부처든 여자든 남자든 애든 어른이든 간에 그걸 탓 안 해요. 너는 여자가 돼서 성불 못한다, 너는 애가 돼서 성불 못한다, 너는 늙어서 성불 못한다, 너는 약해서 성불 못한다, 너는 선해서 성불한다 이런 게 없단 말이에요. 약이 들어가면 선이 붙어 돌아가고 선이 들어가면 약이 붙어 돌아가니까.

텔런트가 역을 맡아 가지고 나왔다가 역을 다



그림 · 최주현

하면 그냥 끝나듯이, 인간도 한 철 살다가 끝나면 그뿐이죠. 그런데 요 지구라는 이 주머니에서만 생명이 산다고 생각하지 마세요. 이 주머니에서는 바깥을 영 내다보지 못하니까 우리는 좀 툭 튀어 가지고 바깥을 내다볼 수 있어야 하죠. 또 보는 것만이 도는 아니다 이랬어요. 내다보면 뭘 하는

나 이거죠. 이 물그릇을 보지만 하면 뭘 하느냐, 물그릇을 옮겨 놓아야 할 때는 옮겨 놓을 수 있어 야지 되지 않겠느냐는 얘기고요. 실현이 없다면 이 건 도가 아니다. 전부 아니다 이겁니다. 오신통(五神通)이라는 것도 여러분의 몸통이예요. 타신통(他心通)이니 천이통(天耳通)이니 숙명통(宿命通)

이니 신족통(神足通)이니 이런 것도 전부 육체의 통 속이라고요. 마음이 통 속에서 한 발짝도 못 나가는데 어떻게 지구 바깥을 나갈 수 있고 우주 바깥을 나갈 수 있느냐는 얘깁니다. 우주를 자유자재로 돌 수가 있겠느냐는 얘기고요. 그리고 어떻게 일체 만물만생, 생명체, 하늘과 땅, 또는 이 중 세계를 다 포함해서 일대사로서 이렇게 흡수할 수 있겠느냐는 얘깁니다. 만하면 나 아님이 없이 할 수 있겠느냐는 얘기고요.

그런 수준으로 어느 정도 가야만... 요새 컴퓨터 바이러스가, 그것이 컴퓨터에 입력해 놓은 것을 다 없앤다고 그러죠. 그것도 걱정할 게 없는 겁니다. 그거는 이쪽에서 막아도 되고, 그쪽 사람을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걱정이 없는 거고,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연구할 수도 있는 거죠. 그런 거를 어떻게 생각하다 보면요, 참 세밀하게 생각돼요. 만약에 남의 회사 거를 훔쳐 온다거나 남의 나라를 집어먹기 위해서 자료를 훔쳐 간다고 한다면 어떡하란 말이에요. 그러니까 그것을 훔쳐 가지 못하게도 할 수 있고, 남을 망하게 하는 거는 할 수 없게 하고, 망하지 않게 하는 거는 그냥 두고...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는 얘기고요. 바로 부처님의 그 말씀이 말씀으로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다가오는 모든 것들에게 현실적으로 적용이 된다는 거죠.

그러니까 우리가 새해에는 더욱더 분발해서 국가적으로도 좀 더 발전이 되어야겠지만 우선 우리 신도님들이 앞으로 자녀들을 키우고 가정을 이끌어 나가는 것도 그렇고 또 병고 액난에 휘달리는 것도 그렇고, 세균성이나 영계성 또는 유전성 임업성 인과성, 이런 것들 다 여러분이 처리하고 넘어갈 수 있는 능력을 길러야 된다고 봅니다.

### 놓으려 해도 놓아지지 않아요

**문** 스님께서는 내 앞에 닥치는 모든 것을 놓으라고 하십니다. 그렇지만 제 안의 너무나 괴롭고 딱딱한 마음을 놓으려고 아무리 애를 써봐도 놓아지지 않습니다. 그럴 때면 차라리 그 잡념을 놓기 위해서 1시간이고 2시간이고 계속해서 절을 합니다. 그러면 잠시 있을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스님, 어떻게 해야 제 안에서 물결듯이 흘러나오는 업식들을 벗어날 수 있을까요?

**답** 물론 놔 버리는 것도 참, 단계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. 여러분의 차원이 다 다르고 생각

20면으로 계속

## 이것이 바로 “우주적 신불교의 진면목”

영산불교 현지궁에서 펴낸 위 불서 3권은 팔만대장경의 진수와 동서고금의 종교철학사상을 뛰어넘어 우리 인간의 확실한 생사관과 절대계의 붓다님들의 소식을 파헤친 이 시대 최고의 보서(寶書)이다.

이 책은 모든 호법선신이 옹호할 것이며, 성증과 나한이 삼재판란을 제거할 것이다. - 불세존 말씀 -

거룩하고 희유한 미증유의 성서  
“21세기 붓다의 메시지”

위대한 우주적 메타종교, 불교의 법세계  
“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”

존평의 신기원을 연 마스터피스  
“21세기 붓다의 메시지 尊評”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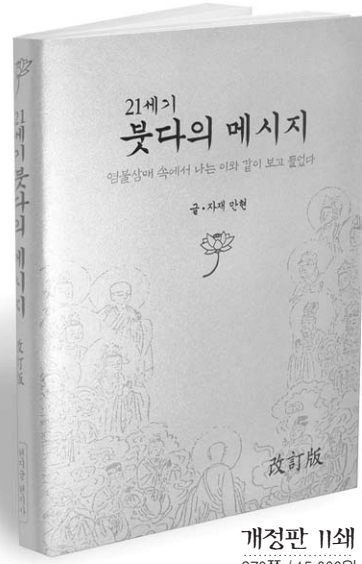
절찬리 판매중

개정판이 나와  
발행 2년만에  
11쇄 !!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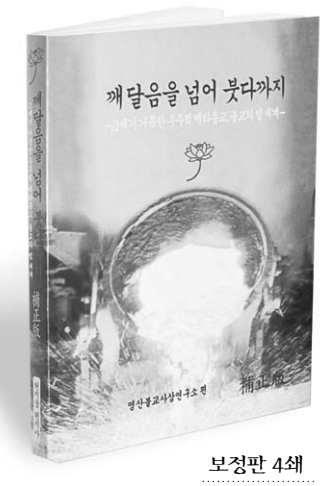
### 위대한 이 시대의 고전

“21세기 붓다의 메시지” 책자의 생사관에 대한, 네 영역에 관한, 그리고 깨달음을 넘어 붓다까지의 큰 스님 법설을 통해서 나는 누구이며, 나는 무엇이며, 무엇을 위해 살 것이며, 왜 살아야 하는지,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알게 되었다. ○○○의 설명으로는, ○ 불교의 교의로는 도대체 판단이 서지 않았던 것이다. 그동안 나는 그저 살았다고 해야 할까..... 나는 이제 현자사 크스님을 만나 인생의 의미를 뚜렷이 알게 되어 매일 매일 보람을 창조하며 사람답게 살아가고 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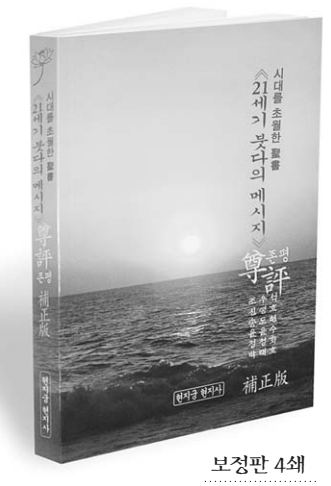
사람이 죽으면 어찌 되는지 현대를 사는 모든 이들에게 종교를 초월해서 누구나 이 세 권의 미증유의 성서를 꼭 필독해보시기 바란다.  
- 지법대학교 의과대학 주임교수



개정판 11쇄  
370쪽 / 15,000원



보정판 4쇄  
509쪽 / 15,000원



보정판 4쇄  
489쪽 / 15,000원